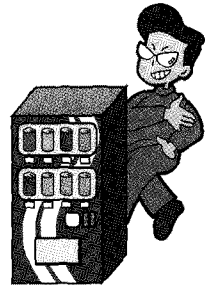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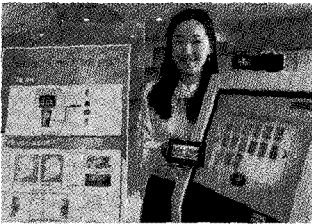


천태만사, 자판기 세상 속으로



ETRI, '콘텐츠 자동판매기' 개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자유자재 사용



내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마음껏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 자판기가 등장한다. 길거리와 상점, 공

향 등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드라마와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 콘텐츠 자동판매기가 상용화된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핸드폰이나 노트북, PMP 단말기 등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판매기'인 '콘텐츠 아일랜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핸드폰, PMP, 게임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단말기 사용자 보급률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콘텐츠의 보급 경로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국내 이동 통신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TRI가 개발한 콘텐츠 자동판매기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가입비나 무선 패킷 이용료 등 제반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료를 꺼내듯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특징이다.

또 콘텐츠 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 규격을 탑재하고 있어 한류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 시장에 콘텐츠 유통산업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ETRI는 콘텐츠 자동판매기와 관련 국내 특허 5건, 국제 특허 15건 등 20건을 출원, 등록하였고, 모비투스(주)와 공동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판매기에 대한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자동판매기는 대당 약 450만원 정도로 판매될 예정이다.

성남시, 식품자동판매기 총 249개소 위생점검 '212개소 양호'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조희동)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구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총 24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12개소가 자판기 내부 관리 및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37개소는 쓰레기통 미비치 등의 사항이 지적돼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위생 점검에서 자판기를 무신고 설치 운영하거나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자판기 내부의 위생적 상태 등 자판기 내부 관리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쓰레기통 미비치, 청소상태 불량, 멸실, 고장 수리 등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와 함께 함께 식품자동판매기 운영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적 취급과 위생의식에 철저를 기해줄 것 등을 중점 지도했다.

수정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자동판

매기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 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간판매기에서 공짜 히트텍 받아주세요

캐주얼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코엑스



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연 기능성 이너웨어 히트텍 무료 제공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간자판기에서 공

짜 히트텍 세트를 뽑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유니클로 히트텍은 자체 발열기능 소재의 기능성 이너웨어로, 지난해 겨울 시즌 일본에서만 2000만장이 팔린 히트 상품이다. 현재 뉴욕, 런던, 파리, 베이징, 서울 5개 도시 거리에서 글로벌 기프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히트텍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색적인 '글로벌 기프팅 이벤트'도 펼쳤다.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인간자판기로 꾸미고, 유니클로의 선진 기술력을 상징하는 미래형 의상을 입은 히트텍 맨이 지나가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히트텍 맨은 서모그라피(체온을 측정하는 기계)를 들고 행인들의 체온을 측정해주고, 추위에 떠는 소비자들을 유니클로 인간자판기로 안내했다. 이 때 소비자가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 안에서 히트텍을 입은 모델이 댄스를 추며 포장된 히트텍을 나눠주었다. 인간자판기라는 이색적인 광경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의 행사장에는 행사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약 3,000여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몰려 히트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SKT 사내 커피자판기, 개인 머그컵 사용

SK텔레콤의 사내 커피자판기에 종이컵이 사라진다.

종이컵 대신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도록 회사 방침이 바뀐 것이다.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는 조만간 종이컵이 완전히 사라질 운명이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닥치면서 SK텔레콤과 KT 등 양대 통신사의 '겨울나기'도 시작됐다. 이들 회사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도만 인상하는 동시에 한 푼의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알뜰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각 층마다 2군데씩 설치된 커피자판기 및 음료용 종이컵을 한 군데만 남겨뒀고, 연내 종이컵을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시에 복사용지도 기존 용지보다 더 싼 종이로 바꿨다.

"문화부 퇴직공무원, 경북궁 등 매점자판기 췌치"

'혹시' 했는데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고궁 매점에서 사먹은 음료수와 과자의 이익금이 상당부분 문화부 퇴직공무원들에게 돌아갔음이 확인됐다. 경북궁 덕수궁 창덕궁 홍류릉 등 전국 궁궐과 왕릉의 매점, 자판기 운영권을 문화부 및 문화재청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상당부분 췌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한선교의원(한나라)이 문화재청 국감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문화재청 산하 총 231건의 편의시설 계약 중 문화부 퇴직공무원 단체인 문공회가 임대받은 건수는 47건으로 전체의 20.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문공회장의 경우 창덕궁, 창경궁의 매점과 자판기를 독점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받았고, 2005년부터는 홍류릉 주차장까지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공회는 문화부, 공보처, 문화재청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친목도모 모임으로 1983년에 결성된 단체. 문체는 문공회가 과거 소속부서와 인맥을 이용해 궁궐과 룡에 산재해 있는 자판기, 매점, 주차장, 기념품판매점을 공릉 관리소와 수의계약으로 다수 운

영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책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한선교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들 퇴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단체가 판매액을 신고하지않아 특별로 벌어들인 수익조차 파악이 안된다”며 “문공회의 경우 임대료만 9200만원에 달하고 이들이 운영한 시설이 공릉 내에 있는 독점적 편의시설임을 감안하면 그 수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2007년부터는 문공회의 계약이 2건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환전및 음성안내기의 경우 이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산하 세종대왕기념관(홍릉)과 칠백의총의 매점과 자판기 등 편의시설은 직장상조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수익계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의원은 “목 좋은 곳에 독점판매권을 갖는 것은 대단한 특혜다. 각종 공권과 능의 편의시설이 문화부와 문화재청 퇴직공무원들에 의해 독점 수익계약이 되지 않도록 공개입찰로 바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편의시설의 질 향상과 문화재청 관리소의 수익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창원, 공공기관 담배 자동판매기 제한

경남 창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등 금연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 발의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 통과되는 대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주변 도로, 버스·택시 승강장 등을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체육·오락·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특히 실내 금연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 ‘클린어 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금연에 필요한 시설

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대해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또 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 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금연실태 설문을 벌인 결과, 전체의 77%가 공공장소의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으며,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관·모텔 자판기 이용 불법성기능개선제 판매 적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유명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은 불법 성기능개선제품을 모텔·여관 등에 설치한 자판기를 이용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미자 등 한방성분의 환(丸)제품에 시판중인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을 코팅한 불법제품 ‘황제’를 대구지역 모텔·여관 등 19곳에 설치한 자판기 28대를 통해 판매해온 3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처 팔지 못한 제품 638kg(시가 4억3,000만원 상당)은 압류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해 ‘황제, 일출, 뿌리깊은 나무’라는 환제품에 코팅했으며 조사결과 실타나필·타다라필 등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이 소량 검출됐다.

이들은 이 제품을 ‘한방비아그라’로 소개하며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아그라 대용식품이며 효과없을 시 100% 환불’이라고 광고해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성기능 개선 제품을 먹게 되면 두통·소화불량·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분이 균일하지 않아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불법 성기능 포

방제품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행성게임장 입장에 자판기 이용

칠곡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온상인가? 칠곡지역 사행성게임장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며 성업 중이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11월 2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업주 A(26·칠곡 약목면)씨를 입건했다. A씨는 한적한 농가의 폐업한 공장을 빌려 4대의 외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음료수 자동판매기로 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을 쿠키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을 해주던 환전업자 B(47·칠곡 왜관읍)씨를 입건하고 수익금 1천400여만원과 경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칠곡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과 불법PC방 등 11곳의 게임장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16명을 입건했다.

카메라에 비상 전화... 시민 보호, 범죄 퇴치 음료 자판기

일본 아이치현 경찰서가 담당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음료자판기를 활용하여 화제가 되었다. 경찰 당국의 주문으로 한 음료회사가 토요하시의 이와타 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첫 선을 보인 이 자판기는 바로 '헬프 자동판매기.' 머리 위에 빨간 경고등을 달아 외관부터 남다른 이 자판기에는 경보기, 경찰 직통 전화,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자판기 전면 하단 도어 안에 설치된 긴급 전화는 누군가 그 문을 열고 수화기를 들거나, 비상 경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긴급 구



조 전화 110으로 연결된다.

또한 긴급전화 도어가 열리면 경고벨이 울리며 자판기 꼭대기의 경광등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한편 자판기 주변에 사람의 존재가 인식되면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여 그 움직임을 모두 기록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과연 이 헬프 음료수 자판기가 2008년 8월 이후로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한 토요하시의 치안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판기도 유럽 폐전기전자제품처리 지침에 포함

유럽의 폐전기전자제품처리 지침(WEEE)은 폐전자기기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생산자는 EU 역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마킹·회수 처리해야 한다. 생산자와 제조자는 공통적으로 WEEE 마크를 부착하고 재활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자는 이 외에도 생산자 등록, 재활용 목표 달성, 보고 등의 의무를 지닌다. 대형 가전과 자동판매기는 재생률 80%, 재활용률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장비·소비 가전은 재생률 75% 이상, 재활용률 65% 이상이 되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자전거만을 위해 탄생한 자동판매기

트렉스톱(Trek Stop)이라 불리는 사진 속 자동판매기는 오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긴 자동판매기이다. 위스콘신주 저널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사진에서와 같이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경우 공기를 주입할 수도 있고 간단한 수리도 영상을 통해 가능하며 자전거 관련된 모든 악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